

중년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id-Life Family Stress and Family coping strategies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 태 현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생 강 인

Dept. of Home Management, Sung Shin Womans Univ.

Associate Prof.: Tae Hyun Kim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graduate School Student: In Kang

〈目 次〉

I. 서론	IV. 연구방법
II. 이론적 배경	V. 결과 및 해석
III. 연구문제	VI.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mid-life family stress and family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conjugal sex and social class. This study was also intended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mid-life family stress and family coping strateg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0 married couples (300 persons) who were 40 to 59 years old in Seoul.

McCubbin, Wilson & Patterson (1979)'s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and McCubbin, Larsen & Olson (1982)'s "Family Coping Strategies" were used to gather data for the study.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factor analysis, T-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s r and cronbach's α for reliability were performed.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conjugal sex and social class in family stress; Wives reported more family stress than husbands. And the lower social class of the family, the more family stress were found.

2.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conjugal sex and social class in family coping strategies; Wives reported more family coping strategies than husbands in "friend and neighbor's support", "religious support". And The lower social class of the family, the more "passive attitudes" were found.

3. There were som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family stress and family coping strategies; The higher extent of the total family stress, the lesser positive attitudes were found.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복잡성은 더욱 다양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바람직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스트레스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은 환경과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사회환경인 가족 안에서 스트레스를 연구한다는 것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다. 즉 가족은 가족생활주기를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가며, 가족원들은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원들이 어떠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변화하고 있는 가족생활 현상의 일면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생활사건을 경험한 모든 가족이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대처전략을 통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적응정도는 달라지게 된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취약성을 감소시켜 주고 가족의 자원을 강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대처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가족은 발달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생활주기마다 그 나름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지니게 되는데 McCubbin 등²⁾은 가족생활주기 가운데 후기 단계도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Boss³⁾는 자녀의 독립이 중년기 가족원에게 주요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년기 가족은 부모가 여전히 자녀양육에 깊게 관여하고 있으며 노부모와의 관계도 긴밀하여 여러 역할의 동시적 요구로 인한 과중한 부담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년기 가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은 그들의 성에 따라 다른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을 나타낼 수 있으며,⁴⁾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을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⁵⁾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 사회계층에 따라 우리나라 중년기 가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을 살펴보고, 문화적 상황에 차이가 있는 외국의 중년기 가족 스트레스와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가족스트레스의 일면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A. 가족스트레스

1.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스트레스원 개념

스트레스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으나 최근 가족학에서는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독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족스트레스에 대해 Boss⁶⁾는 개인과 가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과 변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가족체계 내의 긴장과 압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가족스트레스는 그 자체가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보다는 이것에 직면한 가족이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스트레스를 McCubbin과 Patterson⁷⁾은 가족이 기능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혹은 지각된 요구와 능력의 불균형에서 적응을 요하는 상태라고 하였으며 Olson⁸⁾등은 적응을 필요로 하는 실제 혹은 인지된 요구로부터 일어나는 긴장상태라고 하였다.

한편 가족스트레스는 가족체계 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생활사건 즉 가족스트레스원으로 부터 기인하게 되는데 Boss⁹⁾는 가족스트레스원이란 스트레스 과정이나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으로서 가족의 인지, 자원, 전후상황에 의해 스트레스를 생산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극이라고 하였다. 이

러한 가족스트레스원은 대부분 실증적 연구에서 생활사건의 수로 제시되어 왔으며, 비통례적 생활사건과 통례적 생활사건, 의지적 스트레스사건과 비의지적 스트레스사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족스트레스원의 형태가 어떻게 분류되는가에 따라 가족의 스트레스 정도, 대처방안, 인지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족스트레스원은 연속적 스트레스 과정에서 출발점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가족스트레스 이론

가족스트레스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가족 그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처음 연구한 것은 1930년 경제공황동안 Chicago대학과 Michigan대학에서 사회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⁶⁾

그 이후 Hill⁸⁾은 ABC-X모델과 roller-Coaster모델을 개발했는데 그의 이론은 현재까지 가족스트레스 이론의 실증적 기초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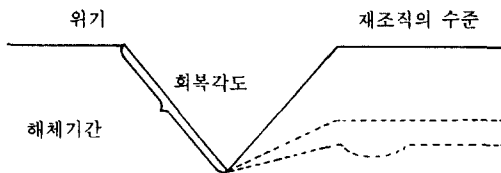
A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사건, 혹은 거기에 수반되는 곤란성)

→ B (사건발생시 가족의 자원)

→ C (사건에 대한 가족의 지각 및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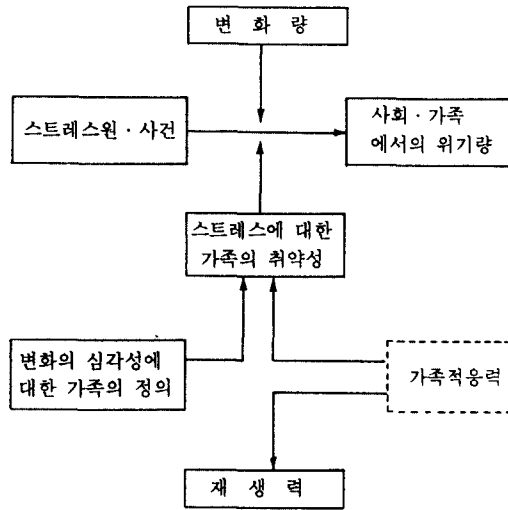
→ X (위기)

<그림 1> Hill의 ABC-X 모델



<그림 2> Hill의 roller-coaster 모델

Hill의 ABC-X모델과 roll-coaster모델을 비교해 보면 ABC-X모델은 스트레스 상황 발생의 인과모델로서 가족생활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제시하고 있으며, roller-Coaster모델은 가족의 재적응 과정을 통한 가족의 회복력을 제시하고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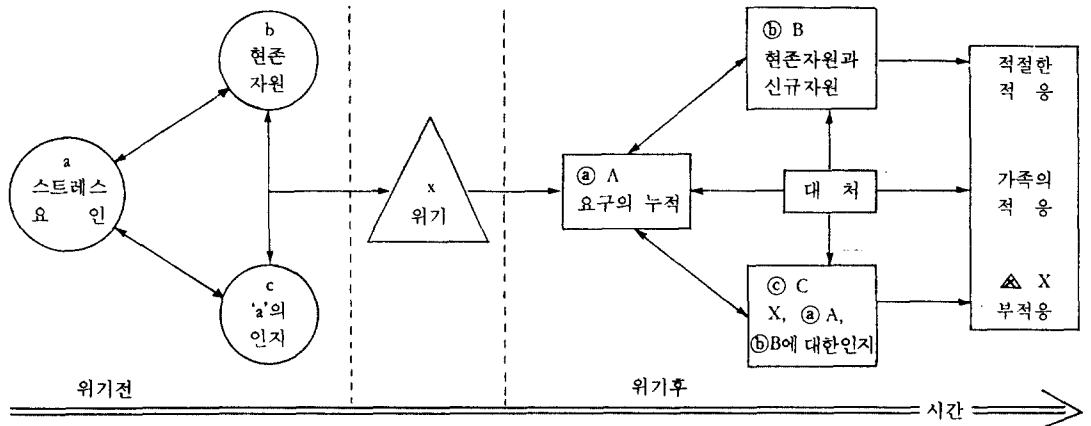


<그림 3> Burr의 가족스트레스 모델

그리고 Burr⁹⁾는 Hill의 ABC-X모델을 수정하여 취약성과 재생력의 개념을 도입시켜 이후 가족스트레스 연구와 이론설립에 자극을 주었으며, McCubbin⁷⁾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의 적응을 설명하는 Double ABC-X모델을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위기전 변수와 위기후 변수들을 통해 가족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의 면을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Boss¹⁰⁾는 Contextual모델을 제시하면서 가족스트레스를 이해하려면 가족외부와 내부의 전후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고 내부전후상황 변수로는 경제모호성, 가족의 신념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현재 가족스트레스 연구 경향은 Hill의 ABC-X모델, Burr모델, McCubbin의 Double ABCX모델과 같은 여러 이론들이 실증적 연구에 적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 McCubbin의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

B 가족대처방안

전형적으로 가족스트레스 연구는 스트레스 사건과 그에 수반되는 어려움에 대한 반응에서 가족원의 심리적인 변화를 입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²⁾ 그러나 최근에는 어떤 가족이 스트레스를 더 잘 해결해 나가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1970년대 가족스트레스 연구의 주요한 관심은 “위기”로 부터 “대처”로 변화하게 되었다.⁶⁾

또한 대처에 대한 초기 연구 대부분은 개인 수준에서의 대처를 연구하였는데 점차 가족 수준에서의 대처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개인스트레스 이론에서 대처를 살펴보면 Chodoff⁷⁾은 적응행동이란 개인의 심리적 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모든 방법의 총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가족스트레스 이론에서 가족대처는 보다 복합적인 특징을 지니게 된다. 즉 가족은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대처행동들은 가족생활의 다양한 차원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²⁾ 이러한 가족대처를 Reiss와 Oliveri¹²⁾는 가족이 일상적인 가족생활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평소와 다른 노력을 발휘하도록 요구되어졌을 때의 반응이라고 하였고, Boss⁹⁾는 가족 내 어느 한 개인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족 단위에 의해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일순간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되어진다.²⁾

한편 최적의 혹은 성공적인 대처의 측정은 대처연구에서 논의되는 한 부분이다. 대처의 효과란 스트레스 사건의 원인이 되는 영향력을 감소 시키기 위한 대처행동들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¹³⁾ 이것은 결과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성과기준과 시간구조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처의 효과는 상당히 다양하며,¹⁴⁾ 대처란 어떤 때는 “창조적이고 고무적”일 수 있으며 어떤 때는 “진부하고 비극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 시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 다른 시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과 가족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서 이해해야 한다.¹⁾

또한 가족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전후 상황으로 부터 나타나는 전략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처목록들을 개발해 왔는데, 초기에 가족대처목록은 전쟁시 군입대로 인하여 배우자와 별거하게 된 아내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어졌고 그후 여러 종류의 다양한 별거와 상실(이혼, 미망인)을 경험한 가족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⁶⁾

C. 관련 선행 연구의 고찰

1. 성, 사회계층과 가족스트레스

성과 가족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Boss¹⁵⁾

은 부인이 남편보다 스트레스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며 스트레스 인지수준도 부인이 남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ohrenwend,¹⁶⁾ Pearlin과 Schooler,¹³⁾ 이 평숙¹⁷⁾의 연구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Jalowicz와 Powers,¹⁸⁾ Uhlenhuth,¹⁹⁾ 정 민자²⁰⁾는 성에 따라 스트레스 사건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사회계층과 가족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Hock등,²¹⁾ Bernard²²⁾는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불안정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고 Jalowicz와 Powers,¹⁸⁾ Uhlenhuth¹⁹⁾는 사회계층과 스트레스 수준은 무관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때 성 그리고 사회계층 변인들은 가족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성, 사회계층과 가족대처

성과 가족대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Ventura와 Boss⁹⁾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대처행동을 보인다고 하였고, Olson등¹⁾은 가족대처전략 가운데 “사회적 지원”, “정신적 지원”, “공식적 지원”전략은 부인이 남편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한편 Jalowicz와 Powers¹⁸⁾, 김 영규²³⁾는 대처와 성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사회계층과 가족대처의 관계를 살펴보면 Pearlin과 Schooler¹³⁾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우월감”과 같은 효율적인 심리적 자원을 많이 가지며 직업과 재정문제를 다루는데 “공정적 비교의 가능성”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 세경²⁴⁾은 교육수준, 가구 소득, 가구주 직업이 높을수록 장기 적응방법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 그리고 사회계층 변인들은 가족대처와 관련된 연구마다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

Olson등¹⁾은 진수기 가족에서 낮은 스트레스 가족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구조적으로 다루기 쉬운 형태로 정의하는 “재조직”의 대처전략을 보이고 높은 스

트레스 가족들은 보다 운명론적으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수동적 평가”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Bell²⁵⁾은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비효율적인 대처방법인 단기 적응방법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고 배 종열²⁶⁾은 부모 자녀간 긴장, 경제적 긴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때 가족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지게 되면 그에따라 가족대처방안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년기가족:서울시에 거주하며 부부의 연령이 40세에서 59세 사이이고 막내자녀가 중학교 이상에 재학중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스트레스원:가족체계 내 변화를 야기시키는 생활사건으로 지난 1년동안 경험한 사건을 말한다. 이는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만 지닌다.

3. 가족스트레스:본 연구에서는 가족스트레스를 가족스트레스 사건발생유무와 가족스트레스 인지수준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건발생 자체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1) 가족스트레스 사건발생유무:스트레스 사건의 경험여부만을 말한다.

2) 가족스트레스 인지수준:스트레스사건을 경험한 후 사건에 대해 느끼는 심각도나 마음이 상한 정도를 말한다.

4. 가족대처방안:가족이 스트레스에 직면했을때 가족단위에 의해 스트레스 상황을 관리하는 행동적 인지적 과정을 말한다.

Ⅲ.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성에 따라 가족스트레스 사건발생유무 및 인지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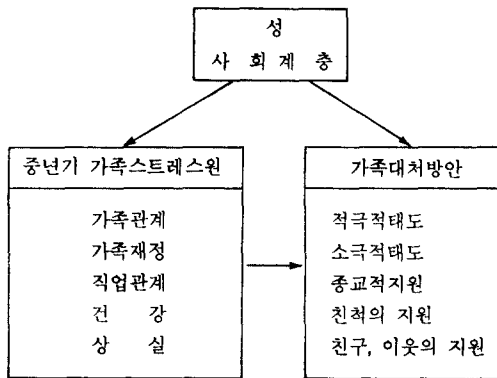
〈연구문제 2〉 사회계층에 따라 가족스트레스 사건 발생유무 및 인지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 성에 따라 가족대처방안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4〉 사회계층에 따라 가족대처방안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5〉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연구모형

IV.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현재 동거중인 중년기 부부로, 연령이 40세에서 59세 사이이며 적어도 막내자녀가 중학교 이상에 재학중인 학부모로 한정하였다.

이것은 중년기가 연령, 가족주기, 사회 역사적 배경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년기를 어느 한가지 견해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우므로,²⁰⁾ 부부의 생활연령과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한 가족주기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한정된 것이다.

그리고 사회계층별로 연구대상을 고르게 표집하기 위해서 상, 중, 하류층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7개교 고등학교와 2개교 중학교를 선정한 뒤, 교사를 통하여 본 연구에 부합되는 학부모를 의도적 표본추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동거중인 부부 300명(150쌍)이었다. 연구대상 부부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B. 측정도구

1. 가족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 척도는 McCubbin, Wilson과 Patters-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N=300)

변수	성 별 분 포	남 편		부 인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직업 형태	무직, 가정주부	1	0.7	117	78.0
	행상, 수위, 청소부 등	13	8.7	6	4.0
	피고용, 기술자, 서비스직종사자	36	24.0	10	6.7
	자영상공인, 일반업무종사자	28	18.7	13	8.7
	일반사무직, 보안업무종사자	8	5.3	-	-
	계장급이하의 공무원, 회사원	7	4.7	2	1.3
	기술직	7	4.7	2	1.3
	관리직	36	24.0	-	-
	전문직, 대기업주 등	14	9.3	-	-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및 중퇴이하	40	26.7	61	40.7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51	34.0	53	35.3
	대학교 중퇴 및 졸업이상	59	39.3	36	24.0

on²⁸⁾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를 기초로 하여 이 가운데서 중년기 가족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을 지적한 Olson²⁹⁾과 Boss³⁰⁾의 자료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중년기 가족 생활에 맞도록 번안 수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측정도구는 5개 하위영역 45문항으로서, 가족스트레스 사건 발생유무는 "경험하지 않았다"에 0점, "경험했다"에 1점을 주어 0점부터 1점의 범위로 환산하였고 가족스트레스 인지수준은 모든 문항을 6점 Likert형 척도도 평정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산출하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alpha=.89$ 로서 높게 나타났다.

2. 가족대처방안

가족대처방안 척도는 McCubbin, Larsen과 Olson²⁹⁾이 개발한 F-Copes(Family Coping Strategies)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29개 문항으로 구성된 F-Copes척도가 우리나라 중년기 가족에게 적용했을시 몇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요인 25문항이 추출되었는데 1요인은 "적극적 태도", 2요인은 "종교적 지원", 3요인은 "소극적 태도", 4요인은 "친척의 지원", 5요인은 "친구, 이웃의 지원"영역으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의 반응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25문항에 대하여 산출한 전체 신뢰도는 $\alpha=.84$ 였다.

3. 사회계층

일반적으로 계층연구에서 직업 변수자체가 모든 것을 반영해 주고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직업은 계층변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이다.³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 두승의 직업분류에 의해 남편의 직업을 측정하고 홍 두승^{30),31)}의 직업군에 따른 사회계층 분류를 근거로 하여 연구대상의 상·중·하류층을 같은 빈도로 의도적 추출, 분류하였다.

* 1 강 인(1989), "중년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2~35 참고.

그 결과 연구대상의 사회계층별 빈도 및 백분율은 <표 2>와 같다.

<표 2> 사회계층별 연구 대상의 빈도 및 백분율

사 회 계 층	빈도(명)	백분율(%)
상	50	33.3
중	50	33.3
하	50	33.3
전 체	150	100.0

C. 자료의 수집절차

본 연구는 1989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막내자녀가 재학중인 학부모 7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문항을 제외 또는 수정하여 본 조사에서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서울시 9개 중·고등학교에 질문지 500부를 배부하여 438부(남편 215명, 부인223명)가 회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분석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총300부(150쌍)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가족대처방안의 측정도구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를 위해 Paired t 검증, 일원변량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추후검증으로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를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유의도는 .05수준 이상에서 검증되었다.

V. 결과 및 해석

A. 가족스트레스 사건발생유무 및 인지수준

1. 성과 가족스트레스 사건발생유무 및 인지수준
<연구문제 1> 성에 따라 가족스트레스 사건발생유무 및 인지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과 부인의 평균의

〈표 3〉 남편과 부인간의 가족스트레스 사건발생유무 및 인지수준의 Paired-t검증

스트레스 하위영역	남편과 부인 (N=150쌍)					
	사건 발생 유 무			인 지 수 준		
	\bar{D}	S · D	t	\bar{D}	S · D	t
가족관계	-0.07	0.14	6.02***	-0.34	0.48	8.77***
가족재정	-0.05	0.14	4.53***	-0.24	0.41	7.22***
직업관계	-0.03	0.16	2.58***	-0.12	0.44	3.42***
건 강	-0.07	0.18	4.86***	-0.35	0.65	6.57***
상 실	-0.02	0.18	1.36	-0.04	0.64	0.77
전체평균	-0.06	0.09	7.41***	-0.26	0.32	9.78***

*** P<.01 **** P<.001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부인이 남편보다 스트레스 사건발생 및 인지수준을 높게 나타내고 있었다(T=7.41, P<.001; T=9.78, P<.001).

이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한다는 Boss등¹⁵⁾, 이 평숙¹⁷⁾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상실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보다 더 객관적인 항목에서는 주관적인 항목에서 보다 부부의 일치정도가 더 높다고 한 Boss등¹⁵⁾의 결과를 고려할때 상실영역을 다른 사건보다 더 객관적인 사실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상실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부인이 특히 스트레스를 높게 나타내는 것은 남편이 부인보다 그들의 경험을 언어나 정서적으로 덜 표현하도록 사회화 된 것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혹은 실제 부인에 대한 역할요구와 역할기대가 남편에 대한 것 보다 더 과중하여 스트레스를 부인이 더 높게 나타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계층과 가족스트레스 사건발생유무 및 인지수준

〈연구문제 2〉 사회계층에 따라 가족스트레스 사건발생유무 및 인지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족스트레스의 각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회계층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에서와 같이 스트레스 사건발생은 가족관계

(F=37.48, p<.001), 가족재정(F=19.02, P<.001), 직업관계(F=50.42, P<.001)에서는 상·중·하류층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건강(F=19.07, P<.001)에서는 상·중류층과 하류층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상실(F=13.14, P<.001)에서는 상류층과 중류층, 중류층과 하류층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 인지수준도 〈표 5〉에서와 같이 가족관계(F=43.39, P<.001), 가족재정(F=66.40, P<.001), 직업관계(F=57.89, P<.001), 건강(F=17.99, P<.001)에서는 상·중·하류층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상실(F=6.65, P<.01)에서는 상류층과 중·하류층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와 〈표 5〉를 종합하여 볼때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사건발생 및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는 사회계층과 역의 관계가 있다고 한 Dohrenwend¹⁶⁾, Bernard,²⁰⁾ 이광주,³⁰⁾ 장 병옥,³³⁾ 정 태경³⁴⁾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하류계층일수록 정신건강이 낮고 자원이 결핍하여 중년기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³⁵⁾ 하류층의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생각한다.

한편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검증한 이후 스트레스 하위영역에 따른 남편, 부인 그리고 상·중·하류층의 사건발생유무 및 인지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한 결과,³²⁾ 남편과 부인 그리고 상·중·하류

* 2 강 인(1989), "중년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4~51 참고.

〈표 4〉 사회계층에 따른 스트레스 사건발생유무의 변량분석

스트레스 하위영역	종속변인 독립변인(사회계층)	사건 발생 유 무			
		N	\bar{X}	F	grouping
가족관계	상	100	0.48	37.48***	C
	중	100	0.60		B
	하	100	0.70		A
재정관계	상	100	0.43	19.02***	C
	중	100	0.50		B
	하	100	0.59		A
직업관계	상	100	0.19	50.42***	C
	중	100	0.27		B
	하	100	0.48		A
건강	상	100	0.29	19.07***	B
	중	100	0.34		B
	하	100	0.49		A
상실	상	100	0.10	13.14***	B
	중	100	0.21		A
	하	100	0.15		B
전체평균	상	100	0.35	69.42***	C
	중	100	0.45		B
	하	100	0.50		A

*** P<.01 *** P<.001

〈표 5〉 사회계층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변량분석

스트레스 하위영역	종속변인 독립변인(사회계층)	인 지 수 준			
		N	\bar{X}	F	grouping
가족관계	상	100	0.99	43.39***	C
	중	100	1.49		B
	하	100	1.91		A
재정관계	상	100	0.61	66.40***	C
	중	100	1.00		B
	하	100	1.50		A
직업관계	상	100	0.27	57.89***	C
	중	100	0.61		B
	하	100	1.23		A
건강	상	100	0.75	17.99***	C
	중	100	0.99		B
	하	100	1.45		A
상실	상	100	0.41	6.65**	B
	중	100	0.75		A
	하	100	0.89		A
전체평균	상	100	0.69	80.36***	C
	중	100	1.08		B
	하	100	1.54		A

*** P<.01 *** P<.001

〈표 6〉 남편과 부인간의 가족대처 방안의 Paired-t검증

대처방안 하위영역	남편과 부인 (N=150쌍)		
	\bar{D}	S D	t
적극적 태도	0.03	0.69	0.50
소극적 태도	-0.08	0.91	1.03
종교적 지원	-0.52	1.25	5.08***
친척의 지원	0.01	0.45	0.02
친구, 이웃의 지원	-0.09	0.44	2.72***

*** P<.001.

총 모두 가족관계영역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사건 발생과 인지수준을 나타냈다. 그리고 가족관계에서도 “자녀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 “10대 자녀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많아졌다”라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사건발생과 인지수준을 보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가족들이 친구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가족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가족문제, 혼란, 갈등을 야기하게 되므로³⁶⁾ 특히 가족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 가운데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음을 볼 때, 현재까지 우리나라 중년기 가족은 “진수기 가족”, “빈둥우리 가족”의 의미보다는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중간에서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양쪽에서 협공받는 세대(Sandwiched Generation)의 용어³⁷⁾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³

B. 가족대처방안

1. 성과 가족대처방안

* 3 분 연구결과, 가족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족체계 안과 밖을 들어오고 나갈으로써 가족체계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 “가족경계전환”의 하위영역은 신뢰도가 .09로 매우 낮아 결과해석에서 탈락되었다. 그러나 외국의 중년기 가족은 “가족경계 전환”의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하기 때문에 이것과의 비교를 위하여 “가족경계전환”의 스트레스 사건발생유무만을 살펴본 결과, X=.07로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년기 가족은 자녀들이 가족내에 여전히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3〉 성에 따라 가족대처방안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남편과 부인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종교적 지원($t=5.08$, $P<.001$)과 친구·이웃의 지원($t=2.72$, $P<.0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인이 남편보다 종교적 지원과 친구, 이웃의 지원을 통한 대처방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극적 태도, 소극적 태도, 친척의 지원에서는 부부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와 관련된 “정신적 지원”과 친구, 이웃의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더 높은 대처행동을 보인다는 Olson등³⁸⁾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신을 믿고 감사하며 만족해 한다”와 “사회적 지원과 자아개발 추구”의 대처행동은 부인이 남편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 Ventura와 Boss³⁹⁾의 연구결과와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Olson등³⁸⁾의 연구결과에서 적극적 태도인 “재조직”과 소극적 태도인 “수동적 평가”에서의 부부의 대처방안 사용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태도나 소극적 태도와 같은 가족내부의 심리적인 태도 차원에서의 대처방안 사용은 남편과 부인 사이에 차이가 없지만, 종교적 지원, 친구나 이웃의 지원과 같은 가족외부 행동적 차원에서의 대처방안 사용은 부인이 남편보다 더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사회계층에 따른 가족대처 방안의 변량분석

대처방안 하위영역	종속변인 (독립변인사회계층)	대처방안			
		\bar{X}	S D	F	grouping
적극적 태도	상	4.05	0.73	50.56***	A
	중	3.61	0.77		B
	하	2.99	0.72		C
소극적 태도	상	1.88	0.75	8.35***	B
	중	2.02	0.88		B
	하	2.34	0.81		A
종교적 지원	상	2.60	1.55	4.85***	A
	중	2.22	1.40		AB
	하	1.99	1.21		B
친척의 지원	상	1.58	0.40	11.78***	B
	중	1.64	0.51		B
	하	1.92	0.66		A
친구, 이웃의 지원	상	1.48	0.41	1.70	A
	중	1.57	0.46		A
	하	1.60	0.46		A

*** P<.001

2. 사회계층과 가족대처방안

〈연구문제 4〉 사회계층에 따라 가족대처방안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4〉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족대처방안의 각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회계층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과 같이 친구, 이웃의 지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하위영역은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적극적 태도(F=50.56 P<.001)에서는 사회계층의 상, 중, 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소극적 태도(F=8.35, P<.001)와 친척의 지원(F=11.78, P<.001)에서는 상층과 중층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상·중층과 하층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종교적 지원(F=4.85, P<.001)에서는 상류층과 하류층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상류층과 중류층간, 중류층과 하류층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적극적 태도와 종교적 지원을 통한 대처방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소극적 태도, 친척의 지원, 친구, 이웃의 지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우월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며, 교육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비교”를 통한 대처방안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 Pearlin과 Schooler³⁹⁾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피지배층은 운명을 감수한다는 소극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³⁹⁾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소극적 태도를 통한 대처방안을 더 자주 사용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를 검증한 후, 부수적으로 하위영역에 따른 남편, 부인 그리고 상, 중, 하류층의 대처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한 결과, *남편과 부인 그리고 상·중·하류층 모두 “적극적 태도”를 통한 대처를 가장 많이 나타내었으며 “친구, 이웃의 지원”을 통한 대처방안은 가장 작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극적 태도”를 통한 대처방안은 대체로 “친구, 이웃의 지원”에 의한 대처방안보다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강 인(1989), “중년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53~57 참고.

이러한 결과는 친구, 이웃과 같은 사회적 지원을 통한 대처방안은 자주 사용되며, 소극적 태도인 소극적 평가는 가장 적게 사용되어지며 가장 유용하지 않은 대처방안이라고 지적한 Olson등³⁾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중년기 가족들이 가족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적극적 태도를 통해서 대처를 하는 것과 동시에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참고 기다려 보자는 소극적 태도를 통한 대처를 함으로써, 대처방안이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가족 내적인 대처방안을 더 자주 사용하고 친척, 친구, 이웃과 같은 가족 외적인 자원을 덜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중년기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소극적 태도의 대처방안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가치의식의 하나인 체념적이고 운명론적인 가치관³⁰⁾이 중년기 가족들에게 여전히 내재하고 있어서 이것은 어려움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C.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

<연구문제 5>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5>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가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들은 그들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적극적 태도의 대처방안을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r = -.24, P < .001$). 그리고 가족들은 전체 가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

루고 회피하는 소극적 태도로서 대처방안을 더 많이 나타내고($r = .35, P < .001$), 가족외부의 친척의 지원이나 친구, 이웃으로 부터의 지원을 통한 대처방안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r = .29, P < .001; r = .18, P < .01$). 그러나 대처방안에서 종교적 지원은 전체 가족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낮은 가족은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쉽게 재정의 하는 "재조직"의 대처전략을,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보다 운명론적인 "수동적 평가"를 대처전략으로 나타내고 친구, 이웃과 같은 "사회적 지원"의 대처전략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 Olson등³⁾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부모-자녀간 긴장, 경제적 긴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에 의존한다는 배 종열³⁰⁾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Olson등³⁾은 스트레스가 높은 가족일수록 사회적 지원의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적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 외부의 자원을 더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과 사회계층에 따라 중년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 나아가 중년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차이는 부인이 남편보다 전체 스트레스 영역에서 스트레스 사건발생유무 및 인지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

<표 8>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과의 상관관계

가족 스트레스 가족대처	가족관계	재정문제	직업관계	건강	상실	전체
적극적 태도	-0.27***	-0.20***	-0.17**	-0.07	-0.05	-0.24***
소극적 태도	0.26***	0.25***	0.31***	0.31***	0.17**	0.35***
종교적 지원	0.06	0.04	-0.06	0.10	0.08	0.07
친척의 지원	0.21***	0.23***	0.14*	0.26***	0.25***	0.29***
친구, 이웃의 지원	0.21***	0.12**	0.08	0.09	0.13*	0.18**

* P<.05, ** P<.01, *** P<.001

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의 원인이 실제적인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현상인지 혹은 스트레스를 나타내는데 부분간에 다르게 표현되도록 기대되어지는 사회화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취약한 가족원을 도울 필요가 있다.

2. 사회계층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차이는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전체스트레스 영역에서 스트레스 사건발생유무 및 인지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 상, 중, 하류층 모두 가족관계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하류층의 가족스트레스 조정이 더욱 요구됨을 알 수 있다.

3. 성에 따른 가족대처방안의 차이는 부인이 남편보다 종교적 지원, 친구나 이웃의 지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 모두 적극적 태도를 통한 대처방안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친구나 이웃의 지원을 통한 대처방안은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는 소극적 태도의 대처방안은 적극적 태도와 함께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그 사용정도는 가장 낮았다.⁹⁾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의 하나인 소극적 가치관이 대처방안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한 김 재은¹⁰⁾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세주의적 입장과 함께 숙명적인 인과응보를 믿는 이중 구조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가족대처패턴은 세대에서 세대를 통해 전해질 수 있다¹¹⁾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태도와 함께 소극적 태도를 많이 나타내는 것은 가족생활주기에서 후기단계일수록 소극적 태도의 대처방안을 더 많이 사용한다¹²⁾는 것을 생각할때, 연구대상이 중년기 부부이기 때문에 가족생활주기 가운데 후기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극적 태도의 대처방안은 전체 가족생활주기를 통해서 그 사용정도가 달라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사회계층에 따른 가족대처방안의 차이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적극적 태도와 종교적 지원을,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친척의 지원, 친구나 이웃의 지원, 소극적 태도를 통한 대처방안을 더 많이 사용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가족외부 자원을 더 활용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5.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적극적 태도를 통한 대처방안을 더 적게 사용하였고 소극적 태도, 친척의 지원, 친구나 이웃의 지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족의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가족내부의 자원만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이것을 도울 수 있는 가족외부로부터의 사적, 공적 서어비스가 보다 확충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과 다양한 중년기 가족에게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기타 다른 가족원의 경험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대처방안을 다룬 연구는 많으나 가족의 대처방안을 다룬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가족대처방안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앞으로는 높은 스트레스 가족을 위한 공식적 지원 확충에 대한 방안 연구가 요구되며, 스트레스 이론을 실제에 적용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시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L., Larsen, A.S., Muxen, M.J., & Wilson, M.A.,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1983.
- 2) McCubbin, H.I., Joy, C., Cuble, A.E., Patterson, J. M. & Weedle, R., "Family Str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1), 1980, pp.125~141.
- 3) Boss, P.G., "Normative family Stress: Family boundary change across the life span", Family Relations, 29(4), 1980, pp.445~450.
- 4) Ventura, J.N. & Boss, P.G., "The Family Coping Inventory Applied to parents with new bab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4), 1983, pp.867~875.

- 5) Hill, R., "Families under stress", New York: Harper, 1949, Hock, E., McKenry, P., Hock, M., Triole, S. & Stewart, L., "Child's school Entry: A stressful event in the Lives of fathers", *Family Relations*, 29(4), pp.467~472에서 재인용.
- 6) Boss, P.G., "Family Stress Management: Family Studies Text Series 8",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8.
- 7) McCubbin, H.I. & Patterson, J.M.,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 and Adaption", In H.I., McCubbin, M.B., Sussman and J.M., Patterson (eds), *Marriage and Family Reviews: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New York: Haworth Press, 1983.
- 8) Hill, R., "Families under stress", New York: Harper, 1949. McCubbin, H.I., Joy, C., Cuble, A. E., Patterson, J.M. & Weedle, R.,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1), 1980. pp.125~141에서 재인용.
- 9) Burr, W.R. *Theory construction and the sociology of the family*, New York: John Wiley, 1973. McCubbin, H.I., Joy, C., Cuble, A.E., Patterson, J. M. & Weedle, R.,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1), 1980, pp.125~141에서 재인용.
- 10) Boss, P.G., Mccall, D.P. Greenberg, J., "Normative Loss in Mid Life Families: rural, urban, and gender differences", *Family Relations*, 36(4), 1987, pp.437~443.
- 11) Chodoff, R., "Stress, Defense, and Coping Behavior Observation in parents of children with malignant Disea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0, Feb., 1964, 장병욱,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에서 재인용.
- 12) Reiss, D. & Oliveri, M.E., "Family Paradigm and Family Coping: A proposal for Linking the family's Intrinsic adaptive capacities to its response to stress", *Family Relations*, 29(4), 1980, pp.431~444.
- 13) Pearlin, L.I. & Schooler, C.,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1978, pp.2~21.
- 14) Menaghan, E.G., "Individual Coping Efforts and Family Studie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H.I., McCubbin., M.B., Sussman and J.M., patterson(eds), *Marriage and Family Review: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New York: Haworth Press, 1983.
- 15) Boss, P.G., Gage, G., Greenberg, J & McCall D. P., "The Management of Stress in Mid-Life Minnesota Families", St. Paul, Minnesota: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the University of Minnesota, 1985.
- 16) Dohrenwend, B., "Social Status and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2), 1973, pp.225~235.
- 17) 이평숙,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 18) Jalowiec, A. & Powers, M.J., "Stress and Coping in Hypertensive and Emergency Room Patients", *Nursing Research*, 30(1), 1981, pp.10~15.
- 19) Uhlenhuth, E.H., "Symptom Intensity and Life Stress in the Cit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1(6), 1974, pp.759~767.
- 20) 정민자,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21) Hock, E., Mckenry, P., Hock, M., Triole, S. & Stewart, L., "Child's School Entry: A stressful event in the Lives of fathers", *Family Relations*, 29(4), 1980, pp.467~472.
- 22) Bernard, J., "Stress and the Family", *Journal of Home Economics*, 68(5), 1976, pp.6~10.
- 23) 김영규, "연령, 성, 사회계층별 일상생활상의 스트레스와 대응방법의 비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24) 전세경,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88.
- 25) Bell, J.M., "Stressful Life Events and Coping Methods in Mental Illness and Wellness Behaviors", *Nursing Research*, 26(2), 1977, pp.136~141.
- 26) 배종열, "가족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및 극복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27) 김명자,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28) McCubbin, H.I., Wilson, L & Patterson, J.,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FILE)", St. Paul,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Minnesota, 1979.
- 29) McCubbin, H.J., Larsen, A.S., Olsen, O.H., "Family Coping Strategies (F-Copes)", In D. Olson, H.I. McCubbin., H.L. Barnes, A.S. Larsen, M.J. Muxen & M.A. Wilson (eds),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2.
- 30) 홍두승,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 한국 표준직업분류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5권 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83a pp.69~86.
- 31) ———, "한국 사회계층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법문사, 1983b, pp.169~213.
- 32) 이광주,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방법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33) 장병옥,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34) 정태경,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반응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 35) Cox, C.B., "Illness Behavior in Mid-lif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aryland, 1980. 김명자,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에서 재인용.
- 36) 박혜인, "한국가족의 성격", *가족과 환경*, 서울: 교문사, 1988.
- 37) Wise, G.W. & Murry, V.M., "The empty nest: the silent invasion on two fro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79(1), 1987, pp.49~53.
- 38) 김재은,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7.